

여 91. 1. 4

웨스트팩 은행노조
호주 원정 농성

동양인에 대한 횡포를 현지에 알리고자

호주노조, '한겨레 청년단'에서 지원

은행측의 '단체협약 무효화'에 맞서 1백여일째 어렵게 투쟁 여성신문 11월9일자 보도)을 하던 끝에 지난 3일 호주에까지 와서 활동하고 있는 웨스트팩 한국지점 노조 위원장 김선현 씨를 만난 것은 12월 13일 웨스트팩 본점 앞에서의 집회가 끝난 직후였다. 도와 준 이들에게 인사를 끝낸 그녀는 무척 지쳐 보였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선현 씨를 비롯한 웨스트팩 노조는 지금까지 지점측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9월3일부터 1백여일째 파업하고 투쟁하고 있으나, 한국지점측의 계속되는 노조탄압 때문에 굶기야는 두명의 노조원(김선현 위원장, 김정인 노조원)을 호주로 보내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들은 현재 멜본과 시드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노조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A.B.E.V.(은행노조) A.A.W.L.(호주아시아인 노조연대), 금속노조, 건축노조, 장식노조, 연합교단, 전국노총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KOREAN YOUTH MOVEMENT IN AUSTRALIA 이른바 '한겨레 청년단'이라는 한국 이민2세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들은 이 문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째, 대중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포사회에 알려져 민족과 인권 문제를 유린하고 있는 일을 근절할 것.

둘째, 인권, 평화, 정의의 차원에서 타민족과 연합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며, 동양인에 대한 횡포를 호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싸우는 데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한국내의 노조 탄압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머리가 까맣다고 손가락질하던 호주 백인들과의 문제에서 더욱 미묘하고 흥분되는 사유가 있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들을 보면서 소수민족



인 우리는 민족적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김선현 씨.

-왜 호주에까지 오셔서 활동하게 되셨습니까?

"파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점에서는 노조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 와서 직접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시킬 계획입니까?

"지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신경도 별로 쓰지 않고 지점이란 상의하라는 식의 반응도 있어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또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첫째로 모든 것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둘째, 우리 노조원들과 떨어져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무임금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 노조원 18명 중 16명이 여자이고 주부이기 때문에 집안일과 가족 걱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남편들이 많이 도와 주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별로 특별히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대로면 만족합니다. 처음 88년 12월에 체결한 단체 협약을 그대로 지켜주기바랄 뿐입니다.

-오늘 집회는 성공적이었습니까?

호주도착 직후부터 만나려고 하는 매니저를 오늘도 만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며 단식 투쟁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글·사진/이선주)

0791.1.4